

소통, 화해, 공존: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송영목(고신대 신학과)

들어가면서

왜 소통, 화해 그리고 공존이 이전 담론의 화두가 되어왔고, 여전히 되고 있는가? 아마도 인류가 골 깊은 불통과 갈등의 시대를 지나왔고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¹⁾ 그런데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 종종 다루는 이 세 주제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소통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결국 공존이 가능하므로, 앞선 것은 원인, 뒤따르는 것은 결과로 상호 연결된다. 이 셋이 긴장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파르트헤이트가 남긴 갈등과 상처를 교회가 앞장서서 진실과 화해로 치료해 가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볼 수 있다.²⁾ 혹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유가철학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만물에 짝이 있고, 모순과 대립보다는 어짐(仁; 한자는 문자적으로 두 사람 즉 나와 너의 합일)과 조화(和)를 추구하여 인류의 소통과 공존이 가능함을 역설한다고 주장하면서, 소통과 공존의 실현 조건으로 자기 수양을 강조한다.³⁾ 그러나 이 세상의 불통과 대립과 반목을 볼 때, 과연 소통과 공존이 자기 수양으로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 및 그와 관련된 갈등이다.⁴⁾ 정부는 갈등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소통과 화해 대신에 회피하거나 공격하는 반응을 종종 보인다. 한 예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여실히 나타난 정부의 불통과 변명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소통이 안 되니, 대화를 통한 화해가 없고, 더 나아가 상호 이해와 존중 가운데 공존은 어렵게 되고 있다. 그 결과 독단적인 정책 집행과 사회 갈등은 점증해간다. 지역, 신분, 세대, 계층, 이념, 문화, 종교 간의 불통 그리고 남북한 간의 불화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⁵⁾ 한 예로,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정부가 독점한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이라는

1)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사회, 키케로의 시민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및 기독교 공동체 운동, 아퀴나스의 신국과 지상국, 계몽주의 시대의 시민사회, 토마스 모어의 만민공동체, 프랑스 대혁명 이래의 국민주권론과 시민사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결사체에 관한 통시적인 개념 발전을 위해서 박호성, 『공동체론: 화해와 통합의 사회, 정치적 기초』(서울: 효형출판, 2009), 61-277을 참고하라.

2) S. Barry, "Taking Responsibility for Reconciliation: A Christian Response to the Legacy and Challenge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RC)," *In die Skriflig*, 43(2009, 2), 363-64, 393-94.

3) 김진근,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 측면에서 본 유가 철학," 『유학연구』, 23(2010), 304, 319.

4) 김재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년도 자료』, 278, 283. 고려와 조선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에도 화백(和白)회의, 정사암(政事巖)회의, 제가평의(諸加評議)와 같은 정치적 소통의 전통이 있었지만, "(해방 후 남북한의) 분단의식은 다른 균열구조와 교차하지 않고 중첩되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되었고, 한국정치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가 되었으며 한국정치의 불통의 원천이 되었다." 임혁백, "한국에서의 불통의 정치와 소통 정치의 복원,"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5(2011), 5, 12-13; 박삼경,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의 윤리 공동체를 향하여: 미학적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14), 186.

5) 중보자와 화해자인 예수님을 통한 화해와 하나님의 형상인 타자를 구제하고 사랑하라고 강조한 칼빈의 가르침 위에서 남북한은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에 나설 때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20세기 수십 년에 걸친 통독을 위한 독일 교회의 역할을 모델로 삼아, 상호이해와 화해를 위한 대화 창구 역할을 하며 분단의 뿌리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교류와 지원을 하고, 새터민의 정착에 협조해야 한다. 안인섭, "칼빈의 화해 신학에 근거한 남북한 화해

이름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갈등을 고착시켰다. 그 당시 공공의 복리를 추구해야 했던 공익광고는 대중을 향해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은밀한 폭력 행사 같은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은 소통과 배려 등을 장려하는 경향으로 많이 개선되었다.⁶⁾ 그 결과 그 후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은 통일 친화적이거나 열려 있지 못한 반공적 민족주의라는 장벽에 부딪치기도 했다.⁷⁾

다시 남한 사회로 눈을 돌려보자. 잘못된 호혜성(互惠性) 문화인 끼리끼리 연고주의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뿌리 깊은 숙환(宿患)이 되어 화해와 공존을 해친다.⁸⁾ 진정한 호혜성과 통합을 저해하는 무한 경쟁원칙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는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켜 ‘피로 사회’, ‘시기심 사회’ 그리고 ‘앵그리 사회’를 다수가 경험하도록 만든다.⁹⁾ 경쟁 자체가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경쟁을 위한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 정글처럼 강자가 독식한다면, ‘이웃사촌’ 같은 공동체성은 와해될 것이 자명하다. 약자(소위 ‘지방’과 비수도권, 장애인, 비정규직 등)에 대한 법적인 배려와 공존하려는 의지 없이는 소통과 화해는 불가능하다. 결국 성장지상주의와 성과주의에 함몰된 자본주의 3.0에서 공존과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온정적이고 따뜻한 자본주의 4.0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¹⁰⁾

기독교와 교회 안에도 소통, 화해 그리고 공존이 그리 원활하지 않다.¹¹⁾ 교회-교단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려면, 먼저 경건 훈련, 전도, 부흥과 같은 공통된 관심-주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해야 하며, 지도자의 경건, 검소함, 순수함과 같은 신앙 인격 등이 요청된다.¹²⁾ 기독교의 대 사회 신뢰도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세상에서 배타적인 불통과 독존 곧 뱀처럼 지혜롭지 못함이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현대는 특히 ‘신유목기구’라 불리는 SNS를 통한 다중적이며 쌍방적인 관계 형성과 건전한 여론 형성 및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다.¹³⁾

-
- 와 협력.” 『기독교와 통일』, 5(2011), 4-15; 김병로,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협력: 사회적 측면,” 『기독교와 통일』, 5(2011), 4-9; 박삼경,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의 윤리 공동체를 향하여: 미학적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제,” 195, 202.
- 6) 김미형, 『공익광고를 통해서 본 소통과 배려』 (서울: 한국문화사, 2011), 5, 226.
- 7)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갈등을 넘어 통일로: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119, 122, 161.
- 8) 김준수, “교회연합을 위한 성경적 화해 사역 연구,” 『성경과 신학』, 57(2011), 116; 박호성, 『공동체론: 화해와 통합의 사회, 정치적 기초』, 10.
- 9) 박호성, 『공동체론: 화해와 통합의 사회, 정치적 기초』, 28-29; 강용수, “연대와 공존을 위한 리더십 연구: 권위, 정의, 배려를 중심으로,” 『해석학 연구』, 29(2012), 274-81. 자국어 버려두고, 이른바 ‘언어제국주의’가 만들어낸 표준국어어인 영어로 모든 언어를 통일해야만 세계인이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통을 위해서 다양성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박진수, “다언어 상황과 문화 공존의 방식: 언어국가주의, 언어제국주의를 넘어서,” 『아시아문화연구』, 24(2011), 102.
- 10) 이정진, “패러다임 전환: 성장에서 공존과 행복으로,” 『계간 민주』, 2(2012), 147-72.
- 11) 물론 한국교회사적으로 화해와 일치를 힘쓴 예외가 있다: 1952년에 축출된 고신교회와 화해하기 위해서 1954년 제 39회 총회가 발표한 ‘신사참배 취소 성명서’ 그리고 1959년도 합동과 통합의 분열 직후에 결성된 ‘통합추진위원회.’ 하지만 이 두 경우에 화해와 일치를 진정으로 원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고신교회가 일치의 조건으로 내건 고신교회의 축출이 과오였음을 총회가 성명서로 발표하라는 요청이 거부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통합추진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인 1970년에 통합측은 분열의 주요 원인이었던 WCC에 가입해 버렸기 때문이다. 임희국,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제언,” 『장로교회와 신학』, 8(2011), 229.
- 12) 박창훈, “프란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와 존 웨슬리(John Wesley): 갈등과 화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139-40.
- 13) 권진숙, “SNS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 소통인가? 소외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2013),

그런데 왜 소통과 화해와 공존을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가? 화해 주제를 많이 담고 있는 바울 서신과 비교하면¹⁴⁾ 이 두 서신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바울 서신이 교회 안의 특정한 문제를 주로 다룬다면,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문제 곧 교회의 세상 지향적(world-directed) 사역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서신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갈등이 심각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로마제국과 불신 유대인이라는 반(反)복음적인 외부 세력이 가하는 박해에 직면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이런 형편은 구체적인 양상만 다를 뿐, 안티 기독교 세력을 마주대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통, 화해, 공존을 차례대로 살피고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통, 화해, 공존에 관한 본문의 역사적-의미론적-신학적 메시지를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밝히는 긍정적인 소통이란 삼위 하나님과 교회, 교회와 교회, 교회 안의 성도 간의 소통이며, (계시록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소통은 네로 황제의 강압적이며 니콜라당의 기만적인 소통이다. 두 사도가 말하는 화해란 근본적으로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화목인데, 성도의 재창조 사역으로 발전한다. 두 사도가 말하는 공존이란 삼위 하나님에게서 완벽한 모델을 찾을 수 있지만, 성도는 폭력과 박해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성도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강화하면서 세상 변혁을 추구해야 함을 밝힌다. 이 글의 마지막에 소통, 화해, 공존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1.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통

일반적으로 ‘소통’(疏通, mutu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은 사물 혹은 사람이 서로 막힘이 없이 잘 통하고 이해하는 것 혹은 의미의 전달을 의미한다. 오래 전부터 간본문적 해석가들은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전달되려면 화자/저자-(문자적/비문자적)본문-1차 독자/청자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차원에서 대화주의(dialogism)를 강조했다. 소통을 위해서 (1) 대상을 공감하면서 인지하고 해석하는 기술과 능력, (2) 화자 자신의 소망과 필요와 목적과 연관된 진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3)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4) 대상을 신뢰함으로써 소통하는 가운데 예상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¹⁵⁾ 따라서 배려 없이는 소통이 어렵다.¹⁶⁾ 성경적으로 볼 때, 소통이 문제가 된 시초적 사건은 아담의 타락이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소통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기독교가 말씀 중심의 소통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며 소통하신 결정적 방식은 성육신이라는 방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자 형상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소통의 결정적이고 분명한 방식이다.¹⁷⁾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과 화해를 이루셨

288: 임혁백, “한국에서의 불통의 정치와 소통 정치의 복원,” 24.

14) R.J.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and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Maryknoll: Orbis Books, 1999), 42-62.

15) K.O. Gangel & S.L. Canine,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In Churches and Christian Organizations*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17-18.

16) 권진숙, “SNS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 소통인가? 소외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권(2013), 285-309.

17) K. Jørgensen, “Models of Communication in the New Testament,” *Missiology*, 4(1976, 4), 466, 469.

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도 이루셨다(엡 2:15).¹⁸⁾ 따라서 소통은 그 자체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화해로 이어진다.

1.1.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소통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불 시험과 같은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박해가 닥치기 직전 곧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터키의 서부지역에 있던 초대 교회에게 보낸 회람 편지이다.¹⁹⁾ 따라서 한 통의 회람 서신이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와 본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과, 넓은 지역의 수신자들 사이에도 소통이 있었다는 점이다. 수신자들이 유대인 출신과 헬라인 출신으로 혼합되었지만 소통에 지장이 없었다.²⁰⁾ 또한 수신자들은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신 주인 아래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노예들(벧전 2:18), 불신 남편을 둔 부녀들(3:1), 남편들(3:7), 장로들(5:1-4), 젊은이들(5:5), 초신자들(2:2). 수신자의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구별이 소통을 가로막지 못했다.

베드로는 효율적인 신적 소통을 위해서 저자의 신뢰성인 에토스(예. 벧전 1:1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독자들의 공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 파토스(예. 벧전 1:8의 독자를 향한 칭찬), 그리고 수사학적 기법 등을 동원한 체계적인 논증인 로고스의 상호 조화를 통한 설득을 시도한다.²¹⁾ 이것은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인데, 충성된 복음의 증인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다(계 1:9; 22:16, 20).

베드로전서 1:2이 보여주는 바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구원 사역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는 미리 아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는 순종하시고 피를 뿌리신다. 이런 신적 소통은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다(계 1:4-5).

베드로는 2:17에서 “뭇 사람을 공경하라”고 권면하는데, 뭇 사람에 타 종교인이나 왕도 포함된다. 세상에 대해서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무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도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 때 교회는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래야 세상은 복음을 눈으로 볼 것이다(참고. 벧전 3:1-2).

베드로전서 2:19는 '세상에 흩어 뿌려진(dia-spora, 1:1) 말씀의 씨(σπορά, 1:23)'인 그리스도인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양심'(συνείδησιν θεοῦ) 곧 복음으로 거듭난 양심이다(참고. 벧전 3:21).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 안에 새롭게 된 양심(직역: '함께 아는 의식')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도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양심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이 선한 양심 곧 새로운 가치관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데(벧전 2:20; 3:2, 9, 11, 16-17; 4:16, 19), 선한 양심과 행실로부터 불신자들이 빛을 본다. 성도의 믿음의 언어나 종교적 관습보다는 이 선한 양심이야말로 소통에 효과적이다.²²⁾ 베드로는 3:15에서도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다룬다. 15절을 감싸는 13절의 선을 행함과 16절의 선한 행함과 17절의 선을 행함을 고려해 본다면, 베

18) R.A. Harrisville, "Is the Coexistence of the Old and New Man Biblical?" *Lutheran Quarterly*, 8(1956, 1), 20.

19) J.H. Elliott, *1 Pe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100; K. Jobes, *1 Peter* (Grand Rapids: Baker, 2005), 10; 참고. 네로의 박해가 로마 도시에 국한 되었다고 보는 P.J. Achtemeier, *1 Peter*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7), 33.

20) Elliott, *1 Peter*, 95-96.

21) 베드로전서의 수사학적 기법에 관해서는 Elliott, *1 Peter*, 65-68; Achtemeier, *1 Peter*, 3을 보라.

22) 채영삼,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서울: 이레서원, 2014), 172, 217, 249, 265, 315.

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닦아가는 선한 양심과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라고 권면한다.²³⁾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은 믿음 자체이며, 성도가 불의하게 성도에게 고통을 가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세상은 양심과 도덕으로써 교회와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참고. 행 24:16; 딤후전 3:9; 히 9:14). 성도의 선한 양심과 행실은 성도를 욕하기를 좋아하는 습성과 무더진 양심을 가진 불신자를(참고. 벰전 4:4) 부끄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벰전 3:16). 서도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불신자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교회에 악의를 품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선한 양심을 알아보는 일반은총이 남아 있다.

베드로전서 3:8은 성도 간의 소통의 방식을 다룬다. 그 방식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을 품는 것, 동정하는 것 곧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συμπαθής),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애간장을 흘리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εὐσπλαγχνος), 그리고 낮아진 종처럼 겸손한 것이다(참고. 벰전 4:8-10). 동정, 사랑, 긍휼, 섬김은 예수님의 모습이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소통을 이룰 때 성도간의 소통이 원활함을 교훈한다.

베드로전서 3:18-22는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과 죽음에 대해 승리를 선포한 내용이다. 여기서 선포와 소통의 관계는 무엇인가? 박해 받던 수신자들을 위로하는 승리의 선포이다.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악의 세력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선포이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노아 당시의 불신자들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는 물론²⁴⁾ 수신자들과 구약 사이의 소통 즉 수신자들이 관련 구약 본문을 이해하는 간본문적 능력도 주목할 만하다. 이사야 40:6이하는 베드로전서 1:24에, 이사야 28:16, 시편 118:22, 이사야 8:14는 베드로전서 2:6-8에, 시편 34:12 이하는 베드로전서 3:10-12에 등장한다. 수신자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이 있었을 것이며, 비유대인 출신들은 LXX를 통해서 구약을 접했을 것이다.

1.2.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통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직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와 불신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박해를 받던 터키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위로와 소망의 회람 서신이다. 따라서 계시록은 먼 미래가 아니라 AD 1세기 관점에서 먼저 해석해야 한다.²⁵⁾ 베드로전서처럼 계시록의 수신자들도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으로 혼합되어 있지만, 그들 간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

계시록에서 소통의 방식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소통은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원만한데, 성자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성부와 성령을 믿고 인

23) 채영삼,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 275, 277.

24) 예를 들어, 벰전 1:16의 구약 인용은 앞 단락 13-15절의 논증을 확고히 승인하려는(ratify) 수사학적 전략이다. 이런 구약 인용의 용례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곳에 나타난다(1:18; 2:3, 4-10, 22-25; 3:10-12, 14, 15; 4:8, 18; 5:5, 7, 8). 이렇게 많은 구약 사용을 통해서 추론해 본다면, 수신자들 가운데 구약에 익숙한 이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은 구약을 정경으로 존중했고, 구약 해석 방식(예. 중요 단어들을 연결하는 해석[catchword connection])에 대해서도 일정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B. Witherington, *Letters and Homilies for Hellenized Christians. Volume II: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2 Peter* (Downers Grove: IVP, 2007), 96-97.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구약을 능통하게 사용하며, 독자들도 구약 간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다. D.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Dominion Press, 1990), 20-25.

25)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40; 송영목, *요한계시록* (서울: SFC, 2013), 36-37. 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도미티안 당시 즉 후기 연대로 보는 입장을 위해서는 G.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27.

식한다(계 1:4-5; 22:6, 16-20).²⁶⁾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하늘의 보좌 주위의 4생물과 24장로의 소통도 원만한데, 창세기에서 성막/성전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에덴동산 주제(예. 동쪽 문, 아담과 제사장의 사역을 묘사하는 동일한 동사, 그룹, 나무, 물 주제)가 새 에덴의 회복 이미지로 나타나는 신천신지에서 성취된다(창 2-3; 출 33:18; 34; 왕상 6-7; 겔 28:14; 계 21:1).²⁷⁾ 따라서 창세기의 시작론(protology)은 그 후의 종말론(eschatology)을 내포하기에, 계시록과 다른 성경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진다.²⁸⁾ 또한 어린양과 신부의 소통은 결혼 관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하늘 보좌의 삼위 하나님과 계시록 2-3장의 지상의 7교회 사이에는 종종 원만하지 못한 소통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지상 교회 사이의 소통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며(계 2:5, 16, 22; 3:3, 19), 그 결과는 교회의 승리다.

소위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거짓 선지자, 큰 성 음녀 바벨론) 사이의 소통은 계시록 13장에서 원만하지만, 결국 계시록 17장에서 파멸로 치달는다. 따라서 악의 세력 사이의 소통과 화해와 공존은 일시적이다.

베가모교회와 두아디라교회에 잠입한 이단 니골라당(계 2:15)이 소통하는 방법은 혼합주의와 타협이다. 니골라당은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신전 제사와 연관된 음행도 허용했다.

황제 네로의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며 폭력적이었고, 위선적인 평화를 제시했다. 황제를 찬양하는 무리인 ‘아우구스티아니’(Augustiani)는 일방적으로 네로를 신격화했고, 사람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으면 폭력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네로가 제시한 평화는 제국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수사였으며 강압이었다.

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하늘과 땅의 소통도 주목할 만하다(계 12:12). 이 묵시적 화해(apocalyptic reconciliation)는 박해 중인 성도가 그려보는 믿음의 세계와 지상의 현실 사이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다.

1.3. 요약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 교회 안의 여러 그룹 사이에는 원활한 소통이 있음을 소개한다.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일방적인 소통도 나타난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이 승리의 선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처럼 요한도 삼위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힌다. 베드로는 교회와 세상의 소통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은 성도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이다. 소위 ‘사탄의 삼위 일체’ 사이에도 소통이 원활하지만, 네로 황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국의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고, 이단 니골라당은 혼합주의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덧붙여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신자들은 구약을 잘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논증을 위해서 능통하게 사용했다.

2.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화해

26) L.A. Brighton, “Christological Trinitarian Theology in the Book of Revelation,” *Concordia Journal*, 34(2008, 4), 293-94.

27) J. Kilcrease, “Creation’s Praise: A Short Liturgical Reading of Genesis 1-2 and the Book of Revelation,” *Pro Ecclesia*, 21(2012, 3), 314-19, 324.

28) 계 1:1-8과 22:6-21 사이의 주제와 언어적 병행과 대화도 주목할 만하다. J.A. Du Rand, *Die A-Z van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615.

일반적으로 '화해'(和解, reconciliation)란 개인-국가-사회가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이나 갈등과 다툼이 그치고 풀리는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²⁹⁾ 화해는 갈등이 해소된 상태이며, 그 결과는 용서, 회복, 정의, 환대 등으로 이어진다. 신학적으로 볼 때, '화해'라는 개념은 구약부터 나타나지만 용어 자체는 불가타 번역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자 완성이다. 이 화해 사역은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매개로 하기엔, 사람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롬 5:18-19; 고후 5:19).³⁰⁾ 바울 서신에 15회 등장하는 '화해'는 칭의와 속죄의 결과 및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새 창조와 만유의 새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교회는 화해 곧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화해케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³¹⁾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지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1)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친밀한 관계로 거듭나는 것(참고. 폴 리피르). (2)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참고. 자크 데리다). (3) 양쪽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를 보는 방법. (4) 화해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³²⁾ 이 가운데 (1)이 이상적인데, 가해자의 회개와 피해자의 용서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으로 이 모델을 구약 요셉과 형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해의 결과라 할 수 있는 환대가 가능한 몇 가지 방식이 있다: (1) 상대방과 공유하는 부분(경험, 가치관, 신앙, 신분 등)이 전제되어야 화해의 결과인 환대가 가능하다는 상호적 환대. (2) 자신의 내면적 상태 곧 자신이 남에게 일반적으로 베푸는 행위로서의 환대의 조건을 찾는 자기애적 환대. (3) 보상이나 타인의 환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애적 환대 같이 자존감 증진 혹은 자기 실현을 의도하지 않는 무조건적 환대.³³⁾

2.1.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화해

바울이 화해와 관련하여 사용한 동사는 καταλλάσσω인데(롬 5:10; 고전 7:11; 고후 5:18-20), 베드로전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사람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와 대속이 가능하다고 밝힌다(벧전 1:19; 참고. 히 9:12; 계 1:5; 5:9; 14:4). 즉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사이의 화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이다. 예수님의 화목 사역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백성(벧전 1:2-3, 18; 2:9-10; 참고. 계 1:6),

29)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환대의 목회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299-320; 박창훈, "프란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와 존 웨슬리(John Wesley): 갈등과 화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권(2013), 115-144; 박삼경,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의 윤리 공동체를 향하여: 미학적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인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14), 185-207.

30)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and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42-44; 에마누엘 카통골레·크리스 라이스, 『화해의 제자도: 정의, 평화, 치유를 위한 기독교적 비전』 (서울: IVP, 2013), 61.

31) 김경은,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의 영성," 『신학과 실천』, 36(2013), 449-50. 하지만 바르트는 만인 화해설과 범(凡)은총주의를 주장하여, 만인구원론을 주장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 권문상, "칼 바르트의 신론적 기독교론: 신적 화해 행위의 기독교적 형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신학연구』, 16(2012), 12.

32) 김재구, "용서와 화해의 목회적 모델로서의 요셉이야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2011), 37, 48; 김현수, "조건적 용서와 무조건적 용서의 화해를 향하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2011), 282-85, 295.

33)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환대의 목회신학," 306-13.

치료 받은 자(2:24; 참고. 계 22:2),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되었다(2:25; 참고. 계 7:17).³⁴⁾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해는 갈등이나 폭력을 전제한다. 개인 사이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볼 때, 폭력은 적대적인 국가 간에, 국가 안에서 적대적인 그룹 간에,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발생한다. 개인 사이를 넘어선 큰 차원에서 볼 때 화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라는 기독교적 차원(벧전 1:19; 참고. 롬 5:10-11; 고후 5:18-19), 그리스도 안에서 이질적 인종(유대인과 이방인)과 계층이 하나가 되는 교회론적 차원(벧전 2:9-10; 참고. 롬 9-11; 엡 2:12-16; 골 1:22-23), 하늘과 땅의 만유가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주적 차원이 있다(참고. 롬 11:15; 엡 1:9-10; 골 1:19-20). 그런데 진정한 화해는 폭력이나 갈등을 수면 아래에 덮어두는 성급한(hasty) 평화가 아니며, 무력을 동원한 사회 전복과 같은 해방운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갈등을 다루는 기술적인 노하우도 아니다. 참된 화해는 갈등과 폭력을 해결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화해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감내하며 사는 영성의 실천이다(벧전 3:8-9, 17; 4:16). 베드로 당시나 현대나 불화와 억압과 폭력은 상존한다. 그렇다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기며 패배주의적인 염세주의로 살 수 없는데, 화해의 은총을 입은 이로서 화해를 위한 대리인으로 살아야 한다(참고. 벧전 4:13). 참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총을 입어 새 피조물이 될 때 가능하다.³⁵⁾

2.2.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화해

교회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양의 피로써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해가 가능하다(계 1:5; 5:9; 14:3). 계시록의 시리즈 심판인 7인, 7나팔, 7접시의 재앙도 파멸이 아니라 결국 회개와 화해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계 9:20; 11:13; 16:11).

요한은 묵시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이원론적(dualistic) 논의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화해를 반대한다. 오히려 성도에게 거룩한 경계 곧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계 14:4).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세상 즉 비유대인들과의 화해를 초래했다고 말한다(롬 11:15; 골 1:19-20). 더 나아가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된다고 말한다(엡 1:9-10).³⁶⁾ 요한은 비슷한 취지에서 신천신지를 언급 한 후(계 21:1)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유 사이를 화해케 하신다고 밝힌다(계 21:5). 이 화해는 새에덴으로의 회복과 관련된 재창조인데, 그것은 이전 상태로의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더 낮게 회복되는 것이다. 재창조는 죄와 반역으로 뒤틀려진 세상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재창조 행위로서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이 부족함 없이 갱신되어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34) F.J. Van Rensburg, "Die Identifisering van Soteriologiese Metafore in 1 Petrus," *In die Skriflig*, 39(2005, 3), 602.

35)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and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10, 18-27, 42-57, 60-62.

36)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and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55-62.

37)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화해는 만유를 포함하는 넓이,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는 깊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만큼 완전히 결실하는 길이라는 특징들을 가진다. Come, *Agents of Reconciliation*, 29-30, 35.

2.3. 요약

베드로와 요한은 로마제국의 간헐적 혹은 전면적인 박해 상황에서 화해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화해의 대리자로 살 수 있는지 교훈한다. 복음 선포와 가르침은 교회 지향적(church-directed) 사역인데, 교회 설립의 첫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 다음, 교회가 감당할 궁극적 사역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펼치는 화해 사역이다.³⁸⁾ 복음의 선포로 개종이 발생하고, 가르침으로 성숙이 발생한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안에서 삶으로 화목케 하는 사역은 복음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 사이의 갈등을 종종 유발한다. 이 갈등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진통인 셈이다.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화해를 은혜로 받은 성도는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화해라는 재창조 사역에 동참한다. 하지만 수면 아래 상존하는 폭력과 갈등 구조를 제거하지 않고는 불안정하고 임시적이며 긴장감이 도는 화해는 가능하지만 참 화해는 소원하다. 참 화해를 구현하도록 성도는 화해의 영성 곧 심판을 구원으로 돌이키는 재창조 사역을 위한 경건을 실천을 해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면,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추구할 화해의 방식은 성도가 불신자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현대의 방식은 불신자로부터 보상이나 환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 현대이다.

3.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공존

일반적으로 ‘공존’(共存, coexistence)을 정의내리면, 둘 이상의 사물 혹은 사람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³⁹⁾ 두 당사자가 원만한 평화적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지만, 불편과 긴장 속에서도 공존도 가능하다. 여기서 긴장 속의 공존은 ‘동일화’가 아니라, 일정한 ‘거리두기’라고 부를 수 있다. 1세기의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 거리두기는 교회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혼합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3.1.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공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성도가 불신 세상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행실로써 인내해야 했다(벧전 2:21). 이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요한은 교회가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어울리는 장소인 광야에 거해야 한다고 교훈한다(계 12:6, 12).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계 1:5)이신데, 버가모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도 그러하며(계 2:13),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도 그러하고(계 11:7), 계시록의 기록자 요한도 마찬가지다(계 1:9).⁴⁰⁾ 따라서 공존은 성도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구별되게 사는 거룩의 실천이다(벧전 2:11).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류민과 나그네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은유적 의미를 가지지만, 1세기 성도가 이 땅에서 가난과 근경과 박해를 겪는다는 실제적 의미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⁴¹⁾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사는 장소이다(벧전 4:3; 5:9). 하지만

38) A.B. Come, *Agents of Reconcili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72.

39) 김보경, “용재(容齋) 이행(李荇)의 굴원(屈原) 수용과 문학적 변용: 동일화와 거리 두기 그 긴장과 공존,” 『동방한문학』, 56(2013), 353-96.

40) M.G. Reddish, “Followers of the Lamb: Role Models in the Book of Revelation,”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0(2013, 1), 66-77.

베드로는 이 세상 자체를 악한 것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대신 악한 사회를 부인한다.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행인’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 안에 거하는 것은 불신자와 공존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기 위한 공존이다. 따라서 공존은 조화가 아니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당시 가치관이나 신념을 반박하고 도전하는데, 이 경우 공존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무관한 죄악의 욕망을 의미하는 ‘정욕’(εὐπιϋμῆ)이라는 명사에 베드로의 비난이 담겨있다(벧전 1:14-15). 터어키에 살던 수신자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헬레니즘에 의하면 욕망은 ‘가치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 혹은 육체와 영혼의 싸움에서 ‘불가피한 요소’로 간주되었다.⁴²⁾ 하지만 베드로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이해한다(참고. 약 1:14).

베드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속으로’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비중 있게 다룬다. 특히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아 공존해야 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는 베드로전서 2:18-3:12는 “이를 위하여(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으며 참는 것)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2:21; 3:9)라는 인클루시오 구조를 보인다. 넓게는 썩어 가고, 허망하고, 더러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비교. 벧전 1:4), 좁게는 성도는 까다로운 상사가 버티고 있는 직장의 사원으로서(2:18-20) 그리고 불신 남편을 둔 가정의 아내로서(3:1-6)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살아야 한다(2:21-24).⁴³⁾ 불의한 고난을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화해를 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소통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화해와 소통을 경험한 사람만 세상 속에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 변혁을 위한 공존을 할 수 있다.

3.2.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공존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치 오실 분이므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세 시제를 자신 안에 공존하게 하신다(계 1:4). 세 시제의 공존은 시작-알파와 마지막-오메가이신 성부와 성자를 소개하는 1:8과 17절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의 보좌를 공유하시는 6:16과 성부와 성자가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21:22에서도 볼 수 있기에, 성부와 성자의 공존이 나타난다.⁴⁴⁾ 어린양은 일곱 눈 곧 일곱 영을 가지고 있기에 성자와 성령의 공존도 나타난다(계 5:6). 결국 삼위 하나님의 공존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의 기초가 된다.⁴⁵⁾

계시록에 경계선을 구분 짓는 이원론적 사상이 강하기에 성도와 세상 사이의 공존을 찾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요한이 가르치는 공존은 베드로전서의 공존에 관한 메시지와 상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도 적대적인 세상의 권력 앞에, 성도는 인내하며(계 6:9-11; 12:11)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때문이다(계 21:8, 27). 따라서 성도와 세상은 긴장 관계 속에서 공존한다.

요한은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공존을 암시된다.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명사를 명예

41) 은유적 의미는 Jobes, *1 Peter*, 62를, 문자적 의미는 Elliott, *1 Peter*, 312를 참고하라.

42) Witherington, *Letters and Homilies for Hellenized Christians*, 95.

43) 채영삼,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 205.

44) Du Rand, *Die A-Z van Openbaring*, 603.

45)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이 밝히는 삼위 하나님의 공존과 협력을 빈번히 사용된 신적수동태도 증거한다(벧전 1:2, 5, 7, 12, 13, 18, 20, 23; 2:5, 6, 7, 8, 10, 21, 22, 24, 25; 3:9, 16, 18, 20, 22; 4:18; 5:1, 4; 계 11:19; 13:2 등).

스러운 것 곧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계 2:9; 3:9). 12지파에서 나온 144,000명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계 7:5-8). 하지만 다수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교회의 박해자 역할을 하는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만다(계 2:9).

수신자들에게 있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기 위한 공존이 의미가 있다(계 11:15). 변혁을 위한 공존의 방법은 어린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순교적 각오이다(계 12:11). 성도가 세상 속에 불신자와 공존할 경우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요한은 정체성의 경계선 강화 곧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강조한다(계 14:4-5). 어린양의 신부를 상징하는 새예루살렘성의 성곽이 안과 밖의 경계선을 잘 보여준다(계 21:17).

3.3. 요약

완벽한 공존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와 세상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독자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성도가 신앙을 포기하면서 까지 소통과 화해와 공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터키에 머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거리두기'를 통해서 드러내야 했다.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변용을 통한 거리두기는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혼합주의적 보편성에 함몰되지 않을 뿐더러 황제 숭배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불신자와 동일화-획일화되는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⁴⁶⁾ 공존은 게토화나 분파(sect)화를 거부한다. 사도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동떨어져 반(反)사회를 형성하도록 권면하지 않는다. 교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뿐 아니라, 이제 세상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떻게 변혁을 위한 공존을 성취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4. 한국에서 소통, 화해, 공존을 위한 교회의 역할

최근에 논의 중인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은 교회 내적인 차원을 넘어 공적인 차원의 논의들이나 사회의 여러 영역들(문화, 예술, 가족, 과학 기술, 경제, 정치)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신학적 시도인데,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과학 등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시도한다.⁴⁷⁾ 교회가 신앙고백을 확고히 하며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면서, 대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공적 증언의 주체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성경적이다. 교회의 공공적 증언이 제한받고 그 작업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해야 했던 베드로와 요한 시대와 달리, 오늘 날은 공공적인 비판적인 대화가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의 공식적인 박해 직전에 기록된 베드로전서와 네로의 공식적인 박해 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터키의 형편과 현대 한국의 상황 사이의 유사점도 있다. 먼저,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위 '갑을관계'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1세기에 로마제국과 회당이 갑이라면, 교회는 을이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대형교회가 갑이고, 소형교회는 을이 되어 공존과 상생이 쉽지 않다. 그리고 빈익빈부익부와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승자독식 체제와 불공정한 출발선에 세워진 체 강요되는 무한경쟁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와 구제와 같은 기독교의 대사회 공헌이 타 종교와 비교해서 크에도 불구하고 안티 기독교 세력과 교회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해 기독교가 위축되는 경향도 있다. 이와 관

46) 참고. 김보경, "용재(容齋) 이행(李荇)의 굴원(屈原) 수용과 문학적 변용," 358-59.

47)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30, 61-62.

려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교회가 광야성을 상실하여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유일한 갑은 하나님뿐이라는 의식을 하지 못한 체, 교회가 세상 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소통, 화해, 공존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정치-경제-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1세기와 달리 교회는 정치나 경제의 기득권의 편에 서면 안 된다. 복음은 누리기 전에 섬기는 것이고,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기보다 감동을 통한 변혁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득권 편에 서면 정치화되기 쉬운데, 거기에는 세상과의 소통과 공존이 불가능하다. 교회 안의 세속주의는 세상과 거짓 화해를 추구하기에 마땅히 경계 대상이다. 1세기 로마제국처럼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의 다양한 출신 성분처럼 한국도 다문화 국가의 특징이 가속화한다.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등을 전도와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 소통을 돕고 공존을 이룰 때, 세상과 복한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나오면서

소통, 화해 그리고 공존은 삼륜차의 세 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향후 10년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질은 소통 능력이라는 최근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 이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소통이야말로 영원한 화두이다.⁴⁸⁾ 베드로와 요한이 밝히는 긍정적인 소통이란 삼위 하나님과 교회, 지역 교회와 지역 교회, 교회 안의 성도, 두 저자/수신자와 구약 간의 소통이며, (계시록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소통은 네로 황제의 강압적이며 니콜라당의 기만적인 소통이다. 참 소통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소통은 교회 및 세상 속으로 확장된다. 무엇보다 성도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부의한 세상 안에 공존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네로 황제나 니콜라당과 같은 악의 세력은 강압적이거나 속임수로 소통을 시도했다. 두 사도가 말하는 화해란 근본적으로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화목인데, 결국 세상 속에서 성도의 재창조 사역으로 발전한다. 소통의 결과인 화해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시기에, 화해는 우리 밖에서 온 것 즉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경험하는 객관적인 실재다. 화해의 범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보이는 온 세상과 그것을 넘어서는 만유이다. 따라서 깨어지고, 뒤틀리고, 단절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화해는 회복을 위한 새창조 사건이다. 예수님을 통한 화해를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된 성도가 추구할 환대는 불신자로부터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공존의 완벽한 모델은 협동 사역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성도는 폭력과 박해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성도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강화하면서 세상 변혁을 추구해야한다. 경계선 강화는 결국 경계선 확장으로 이어진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없는 완벽한 공존은 교회 안의 여러 그룹 사이의 결속과 공존을 위한 모델이 된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 안에 기독교에 적대적인 불신자와 공존하지만, 혼합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는 소통, 화해, 공존을 지혜롭게 적용한다면, 기독교인의 감소와 안티 기독교 세력의 장벽에 부딪힌 현실을 타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48) 참고. 동아일보. 2014년 4월 3일자 보도.

- P.J. Achtemeier. *1 Peter*.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7.
- S. Barry. "Taking Responsibility for Reconciliation: A Christian Response to the Legacy and Challenge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RC)." *In die Skriflig*, 43(2009, 2), 361-95.
- G.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L.A. Brighton, "Christological Trinitarian Theology in the Book of Revelation," *Concordia Journal*, 34(2008, 4), 292-97.
- D.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Dominion Press, 1990.
- A.B. Come. *Agents of Reconcili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J.A. Du Rand. *Die A-Z van Openbaring*. Vereeniging: CUM, 2007.
- J.H. Elliott. *1 Peter*. Anchor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K.O. Gangel & S.L. Canine.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In Churches and Christian Organizations*.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 R.A. Harrisville. "Is the Coexistence of the Old and New Man Biblical?" *Lutheran Quarterly*, 8(1956, 1), 20-32.
- K. Jobes. *1 Peter*. BECNT. Grand Rapids: Baker, 2005.
- K. Jørgensen. "Models of Communication in the New Testament." *Missiology*, 4(1976, 4), 465-84.
- J. Kilcrease. "Creation's Praise: A Short Liturgical Reading of Genesis 1-2 and the Book of Revelation." *Pro Ecclesia*, 21(2012, 3), 314-25.
- M.G. Reddish. "Followers of the Lamb: Role Models in the Book of Revelation."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0(2013, 1), 65-79.
- R.J.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and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Maryknoll: Orbis Books, 1999.
- F.J. Van Rensburg. "Die Identifisering van Soteriologiese Metafore in 1 Petrus." *In die Skriflig*, 39(2005, 3), 593-613.
- B. Witherington. *Letters and Homilies for Hellenized Christians. Volume II: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2 Peter*. Downers Grove: IVP, 2007.
- 강용수. "연대와 공존을 위한 리더십 연구: 권위, 정의, 배려를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9(2012), 273-97.
- 권문상. "칼 바르트의 신론적 기독교론: 신적 화해 행위의 기독교론적 형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신학연구』, 16(2012), 10-29.
- 권진숙. "SNS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 소통인가? 소외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2013), 285-309.
- 김경은.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의 영성." 『신학과 실천』, 36(2013), 447-78.
- 김미형. 『공익광고를 통해서 본 소통과 배려』.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김병로.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협력: 사회적 측면." 『기독교와 통일』, 5(2011), 1-11.
- 김보경. "용재(容齋) 이행(李荇)의 굴원(屈原) 수용과 문학적 변용: 동일화와 거리 두기 그 긴장과 공존." 『동방한문학』, 56(2013), 353-96.

-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갈등을 넘어 통일로: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 김재구. “용서와 화해의 목회적 모델로서의 요셉이야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2011), 29-53.
- 김재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년도 자료, 275-84.
- 김준수. “교회연합을 위한 성경적 화해 사역 연구.” 『성경과 신학』, 57(2011), 105-33.
- 김진근.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 측면에서 본 유가 철학.” 『유학연구』, 23(2010), 303-32.
- 김현수. “조건적 용서와 무조건적 용서의 화해를 향하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2011), 275-99.
- 박삼경.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의 윤리 공동체를 향하여: 미학적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14), 185-207.
- 박진수. “다언어 상황과 문화 공존의 방식: 언어국가주의, 언어제국주의를 넘어서.” 『아시아문화연구』, 24(2011), 90-105.
- 박창훈. “프란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와 존 웨슬리(John Wesley): 갈등과 화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115-44.
- 박호성. 『공동체론: 화해와 통합의 사회, 정치적 기초』. 서울: 효형출판, 2009.
-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송영목.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서울: SFC, 2013.
- 안인섭. “칼빈의 화해 신학에 근거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 『기독교와 통일』, 5(2011), 1-18.
- 에마누엘 카통골레·크리스 라이스. 『화해의 제자도: 정의, 평화, 치유를 위한 기독교적 비전』. *Reconciling All Things*. 안종희 역. 서울: IVP, 2013(2008).
- 이정진. “패러다임 전환: 성장에서 공존과 행복으로.” 『계간 민주』, 2(2012), 147-72.
-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환대의 목회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299-320.
- 임혁백. “한국에서의 불통의 정치와 소통 정치의 복원.”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5(2011), 5-26.
- 임희국.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제언.” 『장로교회와 신학』, 8(2011), 229-48.
- 채영삼. 『십자가와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의 이해』. 서울: 이레서원, 2014.

요약

이 글의 목적은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 터키의 수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통, 화해, 공존을 차례대로 살피고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통, 화해, 공존에 관한 본문의 역사적-의미론적-신학적 메시지를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밝히는 긍정적인 소통이란 삼위 하나님과 교회, 지역 교회와

지역 교회, 교회 안의 성도, 두 저자/수신자와 구약 간의 소통이며, (계시록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소통은 네로 황제의 강압적이며 니콜라당의 기만적인 소통이다. 두 사도가 말하는 화해란 근본적으로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화목인데, 결국 세상 속에서 성도의 재창조 사역으로 발전한다. 두 사도가 말하는 공존이란 삼위 하나님에게서 완벽한 모델을 찾을 수 있지만, 성도는 폭력과 박해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성도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강화하면서 세상 변혁을 추구해야 함을 밝힌다. 경계선 강화는 결국 경계선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 글의 마지막에 소통, 화해, 공존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한국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는 소통, 화해, 공존을 지혜롭게 적용한다면, 기독교인의 감소와 안티 기독교 세력의 장벽에 부딪힌 현실을 타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제어

소통, 화해, 공존,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Focused on 1 Peter and the Book of Revelation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lve into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n 1 Peter and the book of Revelation which were written under the Neronian persecution for the recipients in Turkey. To achieve this aim, the method of historical-semantic-theological interpretation is employed. According to Peter and John, a true communication is seen among the triune God, among the local churches, among the groups in a congregation, and between the two authors/readers and the Old Testament. But a negative communication is displayed in the Neronian policy and in the Nicolaitans' heretical activity. Peter and John maintain that the reconciliation takes place by the mediatorial works of Christ, on which the recreational work of the saints should firmly stand. Peter and John propose a perfect model of coexistence which is realized in the co-work of the triune God. Christians, as the provisional residents and sojourners, should keep their identity boundary in the persecuting world for the sake of transforming the antichristian society into the kingdom of God. Strengthening the boundary ultimately leads broadening the boundary. Lastly, the present researcher discusses some methods the Church can use for actualizing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n the Korean context. Facing both the decline of Christians and the negative power of anti-christians, the Korean church can take a chance to reverse these undesirable phenomena if she wisely applies the teachings of Peter and John regarding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coexistence into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Coexistence, 1 Peter, Revelation